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5, No. 2, pp. 55~66

중등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관한 성인지적 접근[1)]

정 해 숙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A Gender-Sensitive Approach on Home Economics in Secondary Education

Chung, Hae-Sook

Senior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In Korea, home economics in the secondary school level was only taught to girls until 1995. So, home economics education only for girls was criticized to sexist education by the feminists. According to the 6th revision of curriculum, home economics has been taught to girls and boys. But some of curriculum developers raises another questions o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y argue that home economics is a subject which prepares students for the demand of their day-to-day lives, but they can manage their lives well without school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values of home economics in secondary education from the gender-sensitive approach. For this study, a literature survey on the nature of home economic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and the content analysis on 12 secondary school textbooks of Home Economics were employ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valu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e aim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s to help students grow into a independent person by managing their daily lives. The home is charged with fostering a side of our life which we might call personal, private, intimate and nurturing. The management of the home needs good skills and attitudes, and many knowledges on the child rearing, family relation, marriage, love and sex, which can not be successfully acquired without school learning.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boys and girls can help break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sexes because it can change the attitudes of students regarding the private sphere, which is traditionally where women have worked. Second, most of contents of Home Economics were composed of the women-oriented contents.

1)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때 발표한 '가정과 교육과 양성평등'을 새롭게 보완한 것임
교신저자 : 정해숙(hschung@kwdi.re.kr)

There was a trend still describing that domestic labor mainly be carried out by mother. And the ideas that only the family consisting of two parents and their children is normal were founded. Finally, directions of development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a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 가정과교육, 성(gender),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양성평등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 중반부터 중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을 둘러싸고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여타의 교과들이 학생의 성(gender)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되는데 비해, 실업·가정과는 남학생에게는 기술, 상업, 공업 등의 교과를 여학생에게 가정, 가사 등의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가정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일본(伊東良德 외, 1991),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전형적인 삶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을 주부 또는 가사노동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여성에게 적합한 교육, 나아가서는 여성과 관련된 직업교육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남성에게는 남성의 활동영역 즉 생산과 산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를 위한 교과 즉, 기술, 상업, 공업 등의 교과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성역할 분업론에 입각한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학교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해내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본 협약에 서명한 각국으로 하여금 교육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교육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중의 하나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여성계의 요구(한명희, 1991), 이와 관련한 연구들(김재인 외, 1993; 한명희 1987; 김정자 외, 1986)의 축적에 따라, 「기술」, 「가정」교과의 통합문제가 제 4차 교육과정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5차, 6차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기술」, 「가정」교과는 점진적으로 남녀학생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며, 마침내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은 「기술」, 「가정」교과를 「기술·가정」교과로 통합하고 남녀학생 모두 이수토록 하였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중등단계의 실과교육은[2]적어도 동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형식적 요건에서 양성평등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실과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과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하나는 이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서의 양성평등성이 가정과교육의 목적 및 교육내용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과연 가정과 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칠만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교과인가 하는 점이다.[3] 전자가 가정과 교육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담고 있는가를 짚어보기 위한 문제 제기인데 비해, 후자는 과연 가족 또는 가정생활이라는 사적 영역(private area)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를 굳이 학교교육을 통해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인식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의 문제 제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가정과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교과라면, 가정과 교육이 남녀 모두의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배울만한 가치가 없는 교과라면, 가정과 교육의 목적과 내용면

2) 6차 교육과정까지 가정과는 '실업·가정'이라는 교과군으로 분류되어 왔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기술, 가정교과가 단일 교과로 통합됨에 따라 실과로 교과군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하에서는 실과로 칭한다.

3) 2001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관계자, 교육과정전문가, 교원, 교원단체 및 학부모대표가 모여 실시한 제7차 교육과정관련 교육가족 워크숍에서도 기술·가정교과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에서의 양성평등성을 논의할 필요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터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족 및 가정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삶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특성을 성인지적 접근(gender-sensitive approach)을 통해 교육과정상의 의미와 교과교육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교육을 실과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통해 분석하므로써 실과 교육을 둘러싼 성별 쟁점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제7차 교육과정기 「기술·가정」과목의 가정과 교육의 한계와 문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과 교육이 교과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가정과 교육에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정과 교육의 교육과정상의 지위와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과교육과정 변천과정을 둘러싼 성별 쟁점(gender issue)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제7차 가정과 교육내용의 양성평등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교과서 내용분석에는 중학교 3개 학년 「기술·가정」교과서 9권과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 3권 등 총 12권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각 학년별로 저자를 달리하는 3개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한 것은 중등학교 「기술·가정」교과가 2종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가장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였다. 교과서의 교육내용 분석은 질적 접근 방식을 취하였으며, 연구자에 의한 내용분석 결과는 가정학 및 여성학, 사회학 전공자 10인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술·가정」교육과정의 큰 틀을 받아들인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현행 교육과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현 단계에서 아직 「기술·가정」교육, 그 중에서도 가정과 교육을 둘러싼 교육과정상의 위상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가정과 교과전문가이외의 교육과정 전문가나 여타의 전문가집단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고, 현행 「기술·가정」과의 발전적 해체를 전제로 한 대안적 가정과 교육모형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술·가정」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한계를 갖는다.

Ⅱ. 가정과 교육 : 교육과정상의 위상과 교육적 가치

우리는 흔히 교육만큼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남녀가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진정한 성평등이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과정과 성취 등에서 양성간의 평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남성의 경험과 관점만이 존재하게 되는 성맹적 접근(gender-blind)이나 양성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 성중립적(gender-neutral) 접근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상황을 은폐하거나, 성별 차이를 무시하므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이루기 어렵게 한다(Houston, 1985).

양성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중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전반을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B. Houston. 1994). 성인지적 관점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 교육의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성을 고려하므로써, 교육의 과정이나 성취 등 교육결과에서의 성별 격차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며, 여성의 가치와 여성특유의 관심이 과소 또는 왜곡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의 경험의 세계를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므로써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1. 가정과 교육의 교육과정상의 의미

초기 가정과교육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라는 점에서 가장 성별화된 교과(gendered subject)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과이미지는 가정과 교육이 남녀학생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탈

색되기는 하였으나,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여성에게 보다 적합한 교과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가정생활이 여성이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생활영역으로 관념화되어 온 개인의 사적(私的) 영역에서의 삶에 관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기반한 것이다. 실제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각 교과들의 교육내용을 보더라도 가정에서의 삶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가정과이외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가정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들은 공적(公的) 영역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교과들이다. 마틴(J. Martin, 1982)은 수학과 자연과학, 역사, 인문과학, 문학 등의 교과를 통해 획득하는 개념적 장치나 적절한 증거와 증명의 기준, 사물을 보는 방식 등은 사적 영역에 대비되는 공적 영역이자 직장, 생산과정과 관련된, 즉 남성적 영역으로 할당된 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 기여하며, 여성적 영역으로 할당된 돌봄과 양육, 가사관리, 가족의 필요에 봉사하는 활동 등 재생산과정과 관련된 활동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가치, 태도 등은 교육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가정적 삶의 영역이 우리의 교육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유현옥(1992)은 첫째, 가정적 삶의 영역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의 특성은 교육적 준비나 노력 없이도 자연적 혹은 경험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며, 둘째, 공적 삶의 준비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가정적 삶에 요구되는 특성보다 교육적으로 우선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셋째, 한 개인에게 두 영역의 준비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보다 상위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 공적 영역의 삶에 대한 준비에 그 일차적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의 삶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태도이나, 지식,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을 통해 저절로 습득되는 것도 아니다. 결혼, 양육,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활동이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태도, 기술, 성향 등이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면, 이혼률의 증가와 결혼기피, 가정폭력 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그 동안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몫으로 당연시되어 왔던 사랑과 배려, 타인에 대한 봉사, 희생 등의 가치가 더 이상 당연하지도 자연스러운 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주요 원리를 이루는 이러한 가치들이 가정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삶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랑은 공적 영역에서의 삶을 지배하는 경쟁과 공정성, 정의 등의 가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덕목들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교육과정이 주로 공적 영역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에 우선적 관심을 두는 교과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가정과는 한 개인이 가족의 구성원-남편, 아내, 부모,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내재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 배려에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고 공식적인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교육하는 교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여성의 역할 수행이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오랜 동안 당연시되어 온 여성들만의 가정적 삶에 대한 헌신이 성차별적이며 부당하다는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가정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길러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이에 따라 가정과 교육이 갖는 교육과정상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오롯이 여성에게만 그 책임이 맡겨졌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 태도의 개발이 여성에게만 요구되어 마치 여성이 타고나는 자연스러운 속성인양 간주되었던 가정적 지식과 덕목들이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성에게만 요구되는 배타적 특성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곧 그 동안 교육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가정적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식이나 태도, 가치들에 대한 새롭고도 특별한 교육적 관심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변화하는 사회, 가정 그리고 가정과 교육

중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초등학교의 실과교과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구조나 지식을 가르치는 교

과라기보다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요시하는 실천교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가정과 교과 특성은 가정과 교육이 주요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정생활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그 하나는 가정을 이루는 가족관계, 가족윤리, 가족의 기능 등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적 삶의 영역이 더 이상 여성만의 배타적 책임영역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삶의 터전으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초단위로 기능해 왔다. 가족의 사회 안정 유지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첫째, 부부가족, 편부모가족, 노인단독가구, 동성애가족 등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형성된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2001년, 30세 이상 60세 미만에 속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대에 따라 최저 48.8%에서 최고 64.2%(한국여성개발원, 2002)에 달해, 동 연령대 여성 10명중 5~6명은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치는 동 연령대 여성의 절대다수가 기혼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가사노동만을 전담한 기혼여성이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보다 오히려 더 적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셋째, 자녀양육, 가사노동, 노인부양 등 전통적으로 가족의 고유기능으로 인식되었던 기능들이 국가 또는 사회의 책무로 간주되어 점진적으로 사회화되고 있으며, 넷째, 초혼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자녀 출산율은 낮아지는 가운데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하므로써 가족의 안정성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은폐되었던 아동학대나 아내구타 등의 가정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국가의 개입이 법제화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가정은 가족의 안락한 휴식처, 보금자리라는 우리의 관념이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명절때면 신문 등 언론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은 여성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며 치뤄왔던 명절행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정이 누구를 위한 안식처인지, 안식처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의 제기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답변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질서가 점차 와해되고 민주적인 가족질서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수행해야 할 남녀의 역할에 대한 상호 다른 역할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김양희정경아, 1999), 가정생활영역은 교육이나 직업, 사회생활영역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보다 더욱 뚜렷한 남녀간의 의식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정형성이 깨어지고 있으나, 이를 현실에서 수용하고 새롭게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의식의 차이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이혼률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여학생과 남학생은 서로 다른 성역할의식, 즉 여학생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남학생들은 여전히 보다 가부장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정해숙 등, 1998). 과거 표준화된 가정생활의 틀이 깨지고, 가정을 이루는 개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따라 가정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해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남녀의 역할 수행에 대해 서로 다른 역할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가능한 교과가 바로 가정과 교육이며, 가정과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교육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Ⅲ. 실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성(Gender)

1. 실과교육과정의 변천

실과교육과정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교육시키는 교과로서 기능해왔음은 실과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1). 초등학교단계에 개설되어 있는 실과는 1차 교육과정기에서는 동일한 교과를 남녀학생에게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교육내용은 남녀에게 달리 제공되었다. 관련 교육내용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6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자전거, 고기잡

〈표 1〉 실업·가정교과영역의 교육과정 변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1차 교육과정기 (1954.4~1963.1)	실과: 교육내용으로 성별 구분 남: 금속공예, 자전거, 등 여: 요리, 재봉, 자수 등 남녀용 교과서(6학년) 발행, 4~6학년	농업생활, 가정생활, 공업생활, 상업생활, 어촌생활 중 필수 선택	**실업·가정**
제2차 교육과정기 ('63.2~'73.1) * '69년 부분 수정	실과: 남녀공통이수 4~6학년	**남: 실업일반**, 농, 공, 수산, 공업 중 택 1 **여: 가정**	**남: 일반관리**, 산업일반, 기술, 농, 공, 상, 수산, 기초공학 중 택 1 **여: 가정일반**
제3차 교육과정기 ('73.2~'81.12)	상동	**남: 기술, 여: 가정** 농, 공, 상, 수산, 가사 중 택1	**남: 기술**, 농, 공, 상, 수산 중 택 1 **여: 가정, 가사**
제4차 교육과정기 ('82.1~'87.6)	상동	**남: 생활기술, 여: 가정** 농, 공, 상, 수산, 가사 중 택1	**산업기술, 가정** 중 택 1 농, 공, 상, 수산, 가사 중 택 1
제5차 교육과정기 ('87.7~'92.9)	상동	**기술, 가정, 기술·가정** 중 택 1 / 농, 공, 상, 수산, 가사 중 택 1	**기술, 가정** 중 택 1 / 농, 공, 상, 수산, 가사, 정보산업 중 택 1
제6차 교육과정기 ('92.10~'97.12)	상동	**기술, 가정: 남녀공통 이수**	기술, 가정, 농, 공, 상, 수산, 가사, 정보산업 중 택 1
제7차 교육과정기 ('98~)	실과: 남녀공통이수 5, 6학년	**기술·가정: 남녀공통 이수**	**기술·가정: 남녀공통이수**(1학년)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중 선택(2, 3학년)

주 : 굵은 글씨는 필수교과.

출처 : 곽상만(2000), '실과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실과교육학회 2000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한명희 외(1991), **제6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김영주(1990), **실업·가정 교과체제 및 직업과정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참조, 재구성.

이 배 등을, 여학생은 재봉틀(분해, 손질), 간단한 요리(도넛, 김치), 뜨게, 자수 등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교과서도 남학생용과 여학생이 별도로 편찬·발행되었다(곽상만, 2000). 이처럼 실질적으로 남녀 초등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교육내용을 제공하던 실과교과는 1963년 개정된 제2차 교육과정에 의해 기술 및 가정관련 영역의 모든 교육내용을 남녀학생이 함께 이수하게 된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교 실과교과가 남성의 여성화 논란 속에서 비교적 빠른 1960년대 초반에 남녀공통 이수 교과로 정착된 데 비해, 중학교단계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1992년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비로소 기술과 가정 과목 모두를 남녀학생이 함께 이수하게 되었다. 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학생의 성별에 따른 과목을 지정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기술관련 과목은 남학생에게 가정관련 과목은 여학생에게 이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비록 5차 교육과정이 외형적으로는 남녀학생 구분없이 기술과 가정, 기술·가정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실제 통합교과인 「기술·가정」 과목 개설한 학교는 1992년 당시 5~8%정도에 불과하고(김재인 외, 1993), 교사 수급상황에 맞춰 여학교는 가정과를 남학교는 기술과를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학단계의 실과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80년대 초인 4차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시작되었다(한명희 외, 1991). 남학생에게는 기술 및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과 같은 직업 및 정보관련 내용을 다루는 과목을 부과하고,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 중심의 내용을 다루는 교육을 하는 것은 남녀 성역할의 고착화와 편견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기술·가정」통합과목을 남녀공동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이었으나, 가정학회와 현장 가정담당 교사들의 강한 반발

로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5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통합교과를 기술, 가정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였으나 이를 선택한 학교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도 「기술·가정」통합과목을 남녀공동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연구결과로 제시되었으나(한명희 외, 1991), 결과적으로는 기술과 가정과목을 남녀가 모두 이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보면 1997년 12월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남녀공통 이수 과목으로 개설된 「기술·가정」통합과목은 거의 20여년에 걸친 논란을 거쳐 교육과정 속에 자리잡았다.

한편, 고등학교단계의 실과교육은 2차 교육과정기인 1969년에 부분 개정되어 여학생에게도 기술과 산업일반 교과를 개설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3차 교육과정기에서 5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에게는 기술, 여학생에게는 가정과목이 부여되었으며, 2002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은 1학년의 경우 「기술·가정」통합과목을 남녀공동으로 이수토록 하고, 2, 3학년에게는 실과 교과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등학교 2, 3학년단계에서 실과교과 선택에 있어서 성별 분리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 학생의 성별에 따른 실과교과 선택

교육과정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부여된 나라들에서는 교육과정 선택에 있어서의 성차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1972년 벰(Bem)과 시몬(Simon)은 영국의 587개 남녀공학 중 절반이 엔지니어링, 목공, 건축, 도자기 제조 등은 남학생들에게만, 수예, 의상디자인, 무용 등은 여학생에게만 수강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과가 성별로 제한되는 주된 이유가 남학생 교과의 교사들이 그들의 수업에 여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데 있음을 발견하였다(Riordan, 1990). 이처럼 학생의 성에 따라 교과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1975년 교육과학부의「남녀학생의 교육과정 차이」라는 조사보고서이다(Arnot, 1983).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학교에서 여성과 남성은 다른 흥미와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래를 갖게 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다양한 차별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즉 아동의 성이 다르면 성인기에 수행할 역할 또한 다르므로 각 성에 맞는 역할을 준비하고 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기대하도록 학교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365개교를 대상으로 한 1979년의 교육과학부의 조사결과에서도 65%의 학교가 실과교과에서 학생들의 성에 따라 과목 이수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lamont, 1980). 그래프톤 등(Grafton et als, 1987)도 한 남녀공학 종합학교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목공, 금속가공, 요리, 공업제도, 가족과 아동과 같은 특정 교과들은 남녀학생 모두에게 수강기회가 열려있지만, 남학생이 가족과 아동과목을 들으려면 교사와 사전에 논의하고, 여학생이 목공이나 금속가공을 들으려면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국에서 그린힐과 밀브리지 두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리들(Riddell, 199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은 성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일반적으로 직업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과는 주로 남학생이 택하는 반면, 가정경제나 직물, 가정 및 가족학은 여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교과 선택권이 주어지는 고등학교단계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맞추어 교사와 교육시설 등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경우, 위의 사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성별에 따른 실과교과의 과목이수의 차이가 재연될 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남학생에게 더욱 높다는 점이다. 물리적인 힘보다 정신노동을 통한 지식과 가치의 창출이 부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간의 역할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간의 협력과 책임의 공유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성들의 의식변화는 공적 영역 및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동반자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매우 느리며, 대부분의 남성들이 오로지 직장으로 대변되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을 준비하도록 사회화되어, 가정생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준비 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나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능력, 태도를 개발하기 위한 가정과 교육기회를 남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Ⅳ.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제7차 기술·가정과 교육내용 분석

이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통합교과로 새로이 모습을 드러낸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이 각 급학교 교실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서라는 교육자료 속에서 어떤 교육내용으로 실체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하나의 교과 속에 분리되어 있는 기술과 가정 : 여성을 전제로 한 가정과 교육내용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가정과 교육을 이수하게 된 것은 6차 교육과정 부터다. 제7차 교육과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차 교육과정까지 독립교과였던 기술과 가정을 하나의 교과로 통합하고,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였다.

「기술·가정」교과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대체적으로 기술은 남학생에게, 그리고 가정은 여학생에게 친화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양상이 6차 교육과정기 기술, 가정과 교과서(정해숙·정경아, 1998)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내용영역에 따라 남녀에게 각각 친화적인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기술방법 역시 남녀로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데 있다. 아직까지도 기술은 남학생, 가정은 여학생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 역시 기술관련 교육내용은 대부분 남자로, 그리고 가정관련 내용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기술영역에 여학생을, 그리고 가정영역에 남학생을 등장시키려는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삽화만 보더라도 기술영역인지, 가정영역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남녀를 분리해서 등장시키고 있다.

기술과 가정교과를 통합시킨 취지를 십분 살리고자 한다면 여학생들이 기술영역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남학생 또한 쉽게 가정영역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기술방법이나, 예시, 삽화 등의 자료들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초등학교 실과 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마찬가지로 여성적 영역 또는 남성적 영역으로 이분화되기 쉬움에도 초등학교 실과는 비교적 교육내용을 균형있게 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재림·정해숙, 2002).

그러면 중등단계에서 가정과 교육을 받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 교육은 남학생들에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의 소재는 학생들에게서보다는 교사들에게서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중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실과를 통해 가정과 교육을 이미 받아 왔기 때문에 가정과 교육이 생소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30여년에 걸쳐 중등단계의 가정과 교육은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하 가정과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교사들 또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 교육에 익숙해있기 때문이다.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1998년 전국 235개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542명의 가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정해숙·정경아, 1998), 가정과 교사의 76.6%가 남학생들이 가정과 수업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가정과 교사의 27.9%가 가정교과서의 내용이 남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을 '남녀학생 모두에게 적합한 것으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기술·가정」교과가 여전히 성별 분업적인 교육내용 구성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가정과 교육이 남학생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주기보다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배워두는' 장식적 교육으로 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2. 가정과 교육내용 : 성역할 정형화와 정상가족의 신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술·가정」교과서에 실린 가정과 교육내용은 여전히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책임의 중심을 여성에 두고 있으며, 가사노동과 직업활동으로 대변되는 사회노동을 성별 역할분업에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의 삶의 모습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1) 여성은 가사노동 전담자

현대사회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성역할 의식 변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여성도 이제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문장을 교과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의 변화로 남자들도 가사일을 해야 하며, 아이들도 집안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역설적이게도 같은 단원에서조차 가사노동은 주부의 몫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찾아볼 수 있다.

> 노동 생활시간은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시간 등을 말한다. (중, 2학년, 197쪽, D출판사)

> 직업 노동 시간 또는 수입 노동 시간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노동 시간이다. 반면에 가사 노동 시간은 가족을 위하여 무보수로 가사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으로, 주부의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여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게 된다. (중, 2학년, 208쪽, J출판사)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가정과 교과서는 가사노동의 전담자를 주부로 전제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문은 다른 교과서의 같은 단원에서 발췌한 글이다. 비록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두 예문 모두 가사노동을 주부가 해야 하는 일로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삽화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가족생활과 주거」라는 단원에서 생활행위에 따른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를 하는 장면(중, 3학년, 72쪽, J출판사)을 싣고 있다.

2) 어머니는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전담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은 출판사에 관계없이「기술·가정」교과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머니를 묘사할 때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중, 1학년, 35쪽, K출판사; 고, 1학년, 10쪽, J출판사)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함께 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삽화 속에서 가족이 모여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 같이 청소하는 상황에서도 유독 어머니만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삽화는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라는 단원 중 과거의 가정과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비교해 보자는 주제로 삽입된 삽화이다. 이 삽화는 과거 권위주의적이던 아버지의 모습과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현대의 아버지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삽화인데, 이 삽화 속의 어머니는 과거와 현재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행복한 미소를 띠며, 단란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과 아버지를 위해 간식을 제공하거나 아이들의 식사를 도와준다. 진정 변화하는 가정생활 모습이라면 남녀가 가사노동을 함께 공유하고 가족놀이도 함께 즐기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3) 다양한 직업활동 속의 남성

여성이 가사노동의 전담자라는 인식은 다양한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기술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IMF가 뭔데요?" 10대 용돈 펑펑-아빠수입 줄어도 씀씀이 그대로, 1년 시장규모 수조원대 추정 : IMF 여파로 국내 소비가 전반적으로 10% 이상 위축되는 추세 속에서 10대 시장의 매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중략)...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IMF 이후에도 10대의 용돈이 '늘거나 그대로(68%)'라고 답변해 가계 수입의 감소(-6.7%)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2학년, 230쪽, J출판사)

위의 예문은 직업활동을 하여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남성임을 전제로 한 글이다. 이 글은 1999년 00일보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기사의 제목에서는 '아빠 수입'이라고 칭했다가 기사 내용에서는 '가계 수입'이라고 바꿈으로써 가계 수입=아빠 수입이라는 등식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산업의 이해' 단원(J출판사)에서 산업별 대표 직업을 소개하는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낙농업자, 원예사, 광고 기획자, 선물 거래사 등 산업별 직업의 예를 삽화로써 제시하고 있는데, 총 34명의 직업인 중 여성은 건축가(공업), 텔레마케터(상업), 웹디자이너(정보통신), 프로그래머(정보통신), 영양사(가정), 푸드 스타일리스트(가정), 한복기능사(가정), 디스플레이어(가정), 가족복지사(가정), 육아보육교사(가정) 등 총 10명이 등장한다. 통

계적으로는 전체 직업활동 중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직업인 10명중 6명이 가정관련 산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농업·해양, 수산업 분야에는 전혀 없었다. 특히 1차 산업 분야와 공업, 상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면서 대부분을 남성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경험을 제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성별분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마저 있다.

4) 견고한 정상가족의 신화

도덕과나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가정생활을 주로 다루는 기술·가정교과서에서도 가족의 전형은 부모양친과 자녀, 더 나아가서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하고 있다. 출판사(고 1학년, D출판사)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가족생활문화의 변화모습 중의 하나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함을 비교적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른 두 출판사의 경우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피상적인 수준의 언급정도에 그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교육과정 상 나와 가족관계라는 단원을 통해 나와 부모, 나와 형제 자매, 나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고, 가족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출판사에서도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다양한 가족관계를 고려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른 바 부모양친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정상 가족'이라는 모습만이 반복적으로 제시될 뿐이다.

5) 피임교육의 방치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내용이 취약성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피임교육과 관련한 것이다. 성과 이성교제라는 단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3개 출판사의 교과서 중에서는 중학교용이나 고등학교용 어디에서도 피임에 대한 교육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성폭력과 관련한 교육내용은 다루면서 피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이 이상할 정도이다. 더욱이 D출판사의 경우는 순결문제를 성폭력 등과 함께 다루고 있어, 자칫 성폭력으로 인한 것도 순결 상실로 받아들여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10대 임신과 미혼모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피임교육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다.

> 순결이란 육체적으로는 성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뜻이며, 정신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성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할 수 있는 성숙한 가치관을 지닌 것을 일컫는다. 우리는 여성의 육체적인 순결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순결은 성숙한 성 의식을 가지고 남녀 모두가 지켜야 하며, 결혼 전에는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지켜야 한다.
> (중, 1학년, 28쪽, D출판사)

Ⅳ. 결 론 : 가정과 교육개혁을 위한 제언

가정과 교육은 여성주의적 인식의 성장과 더불어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오랜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적어도 외형적으로 양성평등성을 확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하나 교육내용상으로도 부단한 개선을 통해 가사노동, 성역할, 성폭력 등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의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등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정해숙·김연,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육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서 가족 또는 가정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 학교가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하는 또 다른 문제 제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교육의 주요 교육내용이 되는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와 가치들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로 진입할수록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가정의 안정성이 급격히 약화됨에 따라 가정과 교육에서 수행해야 될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정과 교육은 가족이라는 인간 삶의 본질적 영역을 교육대상으로 하므로써 다른 교과에서는 소외되어 온 사적 영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가치, 태도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다뤄왔다. 그리고 가정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길러지는 타인에 대한 배려, 봉사, 희생, 헌신과 같은 가치나 덕목들은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합리성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교육의 이러한 가치는 가정과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과제, 즉 가정생활영역에 내재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불식하고 남녀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생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 방안이 모색됨으로써만이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 뉴욕주의 성평등 프로젝트(山田 綾, 19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과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계해주는 역할 고리로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사회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라는 인식 하에 가정과 교육내용의 혁신적인 개편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과 교육은 첫째, 남녀 모두 가정관리자와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며, 둘째, 고정화된 성별 역할 분업방식을 탈피하여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어떠한 일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증가나 남성의 가정에서의 책임 증가, 남녀의 변화한 진로 유형, 교육과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에 관한 관련 제도나 법들을 교육내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과 교육은 혈연만이 아니라 비혈연가족이 모여 가정을 이루는 등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이혼률 증가 및 혼인기피, 가정폭력 등 가족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의사소통방식과 관련 사회·제도적 장치들을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다뤄야 한다(정해숙·김연, 2002).

가정과 직장이 통합되고 육체적 힘보다는 창의력과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남녀가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가정의 가사노동과 육아기능이 한 가족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가정생활 현상을 직접적인 교육대상으로 한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가족기능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나 그 과제 해결 방법을 '사회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田結經順子, 1993).

가정과 교육은 가정과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한편,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사회가 가져온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과 교육내용의 전면적 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다. 앞서 「기술·가정」교과서에 대한 교육내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과 교육에는 아직도 특정 성 편향적인 시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여성이 하던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남성도 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체 교육의 틀 속에서 가정과만이 가진 교육적 기능을 활용하여 할 수 있고 해야 될 과제를 찾아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가정과 교육내용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가정과 교육이 가정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남학생들이 가정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한편, 남녀 모두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 관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식과 태도, 기능을 갖춘 자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접 수 일 : 2003년 5월 2일
□ 심사종료일 : 2003년 7월 25일

참 고 문 헌

곽상만(2000). **실과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실과교육학회 2000년도 정기학술대회발표대회자료집. 5~12.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김양희, 정경아(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주(1990). **실업·가정 교과체제 및 직업과정 개선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인, 정해숙, 양애경(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 외(1986).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오재림, 정해숙(2002). **양성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유현옥(1992). **교육철학의 성 중립성과 교육에서의 여성소외**. 교육학연구 30(1). 129~150.

정해숙, 김연(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 외(1998). **학교내 성차별실태조사 및 남녀평등 의식 고취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 정경아(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2002). **여성통계연보**.

한명희 외(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개선 연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한명희(1987). 남녀평등과 교육. **여성학교재편집위원회 편.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학교출판부.

Arnot, Medeleine(1983). A Cloud over Co-education : An Analysis of the Forms of Transmission of Class and Gender Relations. In Walker, Stephen and Barton, Len(Eds.), *Gender, Class and Education*. London : The Falmer Press.

Delamont, Sara(1980). *Sex Roles and the School*, London : Methuen Co. Ltd.

Grafton, Teresa, Miller, Henry, Smith, Lesley, et al.(1987). Gender and curriculum choice. In Arnot, Madeleine and Weiner, Gaby(Eds.), *Gender and the Politics of Schooling*. London : The Open University.

Houston, Barbara(1994). Should Public Education Be Gender Free?. In Ston Linda(Eds.). *The Educational Feminism Reader*. New York : Routledge.

Houston, Barbara(1985). Gender Freedom and the Subtleties of Sexist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35(4). 359~369.

Martin, Jane Roland(1982), The Ideal of the Educated Person. *Educational Theory*. 31(2). 97~109.

Riddell, Sheila I.(1992). *Gender and The Politics of the Curriculum*. London, New York : Routledge.

Riordan, Cornelius(1990). *Girls and Boys in School : Together or Seperate?*.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山田 綾(1993). 性の 公正と家庭科教育. 大學家庭科教育研究會 編. 男女共學家庭科研究の展開. 33~49. 京都 : 法律文化社.

伊東良德, 大脇雅子, 紙子達子, 吉岡睦子(1991). 「教科書の中の男女差別」. 東京 : 明石書店.

田結歷 順子(1993). 生活主體形成と共學家庭科の課題. 大學家庭科教育研究會 編. 男女共 學家庭科研究の展開. 152~164쪽. 京都 : 法律文化社.

〈국문 요약〉

가정과 교육은 오랫동안 여학생에게만 이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남녀 모두 가정과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난은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정과 교육내용이 남녀 모두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보다 본질적으로는 가정과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가족 및 가정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삶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특성을 성인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상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실과 교육을 둘러싼 성별 쟁점을 짚어보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기 가정과 교육의 한계와 문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가정과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